#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와 관능적 디자인의 인지도에 관한 연령별 비교

# A Comparison of Recognition by Age of Sexy Body Parts and Apparel Designs

이정민 · 박숙현*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Jeong-Min Lee · Sook-Hyun Park*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su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sexy body parts and apparel designs by age and to discover the correlations between sexy body parts and apparel design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265 males and 303 females. Analyses included t-tests, f-tests, and Pearson's correlations.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s;

1. The 20's-30's age group found female body parts were sexier than 40's-50's did. 20's-30's believed the male body was sexier than 40's-50's did.
2. The age groups found men's clothing designs were different by different age groups. Also, differences in female clothing designs were recognized by different age groups.
3. The 40's-50's age group recognized see-through sexier than 20's-30s did. Differences in sexy color recognition by age were also found.
4. There were correlations between most of sexy body parts and designs which emphasized the body pa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differences in recognition and correlation by age. The results may be applied to developing sexy designs for different targeted age groups.

Key Words : sexy, eroticism, see-through, body-conscious

## Ⅰ. 서론

이성을 강조하던 모던시대에서 감성과 정서를 중시하는 포스트모던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현대의 패션시스템은 비주얼 광고 등을 이용하여 인체와 섹슈얼리티를 성적인 이미지로 상품화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인체가 상품화의 도구가 되어 인체의 노출과 인체곡선을 강조하는 의상의 확산을 가져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인체의 노출이 성의 상품화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 자신감과 성적 건강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열린가슴 클리비지룩...자신감+섹시미 과시", 2003).

현대에는 사회적 인식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휘트니스와 다이어트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하고 섹시한 몸매를 가꾸고, 이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섹시한 의복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남성들도 성적매력이 있는 역삼각형의 실루엣을 연출하기위해 어깨와 가슴, 팔 등의 근육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밀착된 의상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체와 의복을 통해 표출되는 관능성을 우리는 흔히 '섹시하다'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섹시'라는 용어를 '관능'과 혼용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섹시한 의복의 관심증대에 따라 연구되어진 관능적 디자인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패션에 표현된 에로티시즘에 관련된 논문은 한명숙(1999), 채석옥(1999), 송희정(1999), 홍순미(2000), 변소영(2000), 김희정(2001), 조영란(2004), 이민선(2000) 등이고, 에로틱한 색상에 관한 것은 임정순(1999) 등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Sook-Hyun Park
H.P: 011-9340-4663
E-mail: shpark@star.ks.ac.kr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에로티시즘의 표현방법에 따른 의상의 형태연구, 에로티시즘의 형성배경을 심리적, 사회적, 복식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관능적 디자인 상품개발에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신체부위와 관능적 디자인과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와 관능적 디자인에 관한 인지도 및 상관성을 연령별로 분석하여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부위가 그 시대 유행상품인 관능적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인지하는 관능적 디자인의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예비조사를 통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20~50대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령대별 인지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관능적 디자인은 노출, 비침, 밀착에 의한 섹시함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성의 상품화 현상

오늘날 후기자본주의 사회는 대량소비시장, 다국적 자본, 미디어, 정보, 전자 재생의 시대인 소비사회이다. 이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하에서 디자이너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동시에 도입하게 됨으로써 패션의 다원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패션에서 어떤 규칙도 없이 어느 시대의 어떤 스타일이 복합되었는지도 모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이 표출되었다.

포스트모던시대는 사회전반의 불안 심리, 경제적인 위축, 환경파괴에 따른 긴장감, 자아 정체성의 붕괴,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현실의 불만족 등이 성적인 자극을 요구하는 패션을 추구하게 되었다. 현대의 산업사회가 낳은 물질적인 대중문화는 성의 상품화에 의해 인간의 진정한 성 본능의 표현을 상업주의의 한 방편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현대의 성 해방과 자유의 경향은 성의 실질적 개방이나 고양보다는 성의 상품화와 그에 따른 과도한 노출로 성의 시각화, 영상화됨에 따라 고급스럽지 못한 디자인으로 범람하고 있다. 기업은 성을 상품화하여 신체노출을 확대시켰고, 여성의 신체가 상품화의 도구가 된 것처럼 모든 패션은 앞 다투어 여성의 신체 곡선을 강조하고 노출하였다. 이와 같이 성의 상품화는 현대패션에서 신체곡선의 강조와 노출이 많은 디자인을 유행시킴으로써 성적매력이 강조된 신체가 이상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SI 디자인 실장인 박란실은 과거에는 가슴을 드러내는 패션이 천박함과 성의 상품화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으나, 요즘에는 자신감과 함께 성적 건강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열림가슴 클리비지룩...자신감+섹시미 과시", 2003)고 분석하였다.

최근 도시인들의 건강과 미에 대한 관심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인식으로 인해 여성들은 휘트니스, 성형수술, 건강식품, 에어로빅, 라틴댄스, 다이어트 등을 통해 자신의 몸매를 가꾸고 있다. 로절린느 키워드(1984)는 "현재 유행을 따른다는 것은... 지배적인 성적 이상에 뒤떨어지지 않고 따라갈 각오를 표현하는 것이다."며 여성에게 있어 유행을 따른다는 것이 각별히 성적 이상(sexual ideals)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남성들도 운동을 통해 성적 매력이 있는 근육질의 신체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는 밀착되는 의복을 착용했을 때 어깨와 가슴, 팔 등의 근육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함으로써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몸매를 과시하고 있다. 또한 임신을 사회경력의 끝으로 여기던 기성세대와 달리 섹시하고 노출이 심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해 임신을 스타일링의 확장으로 활용하는 헐리우드 스타의 영향으로 섹시한 임부복까지 유행이다("아름다운 임신...날 좀 봐 주세요.", 2004).

현대에는 대중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연예인들의 섹시한 옷차림과 몸매를 모방하려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으며, 연예인들의 패션을 추종하는 것은 대중문화에 참여하는 한 방법으로서 유행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즉, 현대의 패션시스템은 신체와 섹슈얼리티를 상품화하여 유행현상으로서 소비자를 유혹하는 수단이 되었다.

### 2. 관능성의 개념

관능적(官能的)이라는 뜻은 '육체적 쾌감이나 욕망을 자아내는',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것)'을 의미한다(동아새국어사전, 2005). 이러한 인체와 의복을 통해 표출되는 관능성을 우리는 흔히 '섹시하다'라고 표현하며 사용하고 있다. 섹시(sexy)라는 용어의 뜻은 동아새국어사전(2005)에서 '성적매력이 있는', '매혹적인'으로 풀이 되어있고, 동아프라임영한사전(2005)에서도 '성적인', '성적매력이 있는'이라고 풀이 되어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섹시는 에로틱(erotic)과 섹슈얼(sexual)의 의미와 공용되거나 혹은 하위차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성적인 감각을 뜻

하는 관능의 의미와 같이 성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섹시의 어원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섹시하다'는 말은 에로티시즘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데, 에로티시즘이란 원래 그리스어로 에로스(Eros)에 어원을 두고 있는 용어다. 에로티시즘이란 포괄적 개념으로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오늘날에는 주로 육체적인 사랑, 성애(性愛)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김덕자, 1993). 본질적으로 에로틱의 개념은 성행위의 암시, 이미지 부여 혹은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로티시즘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하나인 섹슈얼리티는 성적 관심이나 성을 뜻(동아영한프라임사전, 2004)하는 말로 단순히 성욕이나 성애의 개념이라기보다 성에 관한 특성, 행동, 경향, 심리적·생리적 충동, 성적매력 등을 가리키며, 인간이 가지는 성에 대한 감정·사상·관심·행동·가치관·신념 및 개인의 존재 의미 등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잠재능력을 지칭한다(윤가현, 1990). 즉, 섹슈얼리티와 에로티시즘은 생물학적인 성적 매력을 뛰어넘어 심리학적인 개념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이수인, 2004).

섹시는 심리학적 섹슈얼리티와 에로티시즘의 성적 매력의 특질을 복식을 통해 표현된 것을 말한다. 보편적으로 현대패션디자인에서는 에로틱한 의복을 표현하는 수단 또는 스타일로서 주로 여성의 성적매력을 강조한 디자인의 '섹시 룩(sexy look)'으로 사용되고 있다. 섹시스타일로는 클래식 섹시룩(classic sexy look), 섹시 머스큘린(sexy masculine), 헬시 섹시(healthy sexy) 등이 있고, 섹시디자인의 표현으로는 섹시 슬림(sexy slim), 섹시 슬리크 라인(sexy sleek line), 울트라 섹시 라인(ultra sexy line) 등 스타일과 디자인 표현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삼성디자인넷, 2000).

섹시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개념과 미의식이 변화되고 있다. 전용훈(1999)은 '섹시하다'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서 80년대 중반쯤 약간의 부도덕한 의미로서 천박하다는 도덕적 불순함이나 외설스런 느낌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부도덕적이라는 느낌보다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오고 있다고 하여 이제 남성들은 자신의 애인이, 심지어 동생과 누이가 '섹시하게 보였으면' 하고 바라며 요즘 여성들에게 '섹시하다'는 말은 큰 칭찬처럼 들린다고 하였다. 박관우(1999)는 현대에는 '섹시하다'는 말을 첫째 '성적매력이 있다', 둘째 '개성이 있다', 셋째 '자유롭다'는 뜻으로서 섹시한 여성에게서 매력을 느끼며, 그들의 미적 감각과 자신의 성적 매력을 표현하려는 당당함이 자유롭다고 하여 성적매력의 개념이 변화하였음을 설명하였다.

## 3. 관능적 디자인의 표현방법

오늘날 인체는 점점 즐기기 위한 성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으며 인체의 모든 부위가 성감대로 노출되었다. 이는 인체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인체는 감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과거에는 단지 남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태였지만, 현대에는 여성의 지위 상승과 여성들의 의사표현 등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의복 착용과 욕구가 우선시되었고,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과 표현의 자유가 증가됨에 따라 과감한 직·간접적인 성적매력의 표현이 증가하였다. 인간은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따라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비침, 밀착 등의 방법을 통해 성적매력을 표현하여 왔다. 특히, 신체부위의 특성상 노출될 수 있는 부위와 노출 할 수 없는 부위가 있고 주로 밀착되어 왔던 부위가 있는 등 신체부위에 따라 표현방법이 다르게 표현되어왔다.

노출을 통한 관능적 디자인의 표현방법은 인체의 일부분을 의복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노출의 다른 표현방법으로 신체를 부분적으로 장식하거나 은폐시켜 틈새로 보고자 하는 욕구 즉, 절시(voyeurism)를 유발시킴으로 성적매력을 표현하는 부분적 노출 기법이 복식에 이용되고 있다. 이는 슬래쉬(slash), 슬릿(slit), 커팅(cutting), 구멍 뚫기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복식의 틈새로 신체의 일부를 드러냄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감추어져 있는 것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킴으로서 성적매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침을 통한 관능적 디자인의 표현방법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것을 통하여 속의 것이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이다. 비치는 의상을 씨-스루(See-through)라고 하는데 씨-스루는 비쳐 보이는 옷, 종이나 섬유 따위가 투명해 보이는 것, 차단되지 않은 시야를 뜻한다(동아프라임영한사전, 2004). 씨-스루 룩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잘 나타내기 위해 투명한 천으로 몸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이 방법은 고대에서부터 성적매력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어져 왔다.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인 인지(認知)로 그치지 않고 섹스어필한 신체부위의 형태를 연상하는 심리작용을 유발하게 한다. 이러한 비치는 의상에 쓰여지는 소재는 다양하고 무한하며, 시각적으로 반응할 때 성적 연상이 가능하므로 은유적이고 암시적인 한 방법이다.

밀착을 통한 관능적 디자인의 표현방법은 옷을 몸에 타이트하게 입어 몸의 곡선미를 뚜렷하게 나타냄으로써 섹시무드를 연출하는 것이다. 여성의 인체에 밀착되는 의상은 나체를 연상하게 하며 남성에게서 볼 수 없는 여성

의 특징을 강조할 수 있다. 이는 아름다운 신체의 곡선에 의복을 밀착시킴으로서 인체의 굴곡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누드보다 더 섹시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인지할 수 있는 관능적 디자인의 차이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와 관능적 디자인의 인지도에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둘째, 관능적 디자인 표현방법과 관능적 색상의 인지도에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셋째,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와 관능적 디자인과의 상관성에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 2.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 1) 예비조사

본 연구의 예비설문은 본 조사의 설문문항 작성을 위하여 남성의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 여성의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 남성복 관능적 디자인, 여성복 관능적 디자인, 관능적 색상에 관해 응답자들에게 자유연상에 의한 자유기술형식을 통해 3가지씩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예비설문을 실시한 결과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신체부위 14개, 남성복 관능적 디자인의 10개, 여성복 관능적 디자인의 12개, 관능적 색상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빈도수가 낮게 나타나 제외시켰다.

예비조사는 관능적 디자인을 많이 접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의 여자 대학생 217명과 남자 대학생 98명, 그리고 관능적 디자인을 많이 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중·장년층의 여성 105명과 남성 50명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 25일부터 2003년 11월 15일까지 총 470부의 설문을 배부·회수하였다.

#### 2) 본 조사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와 관능적 디자인에 대한 섹시함의 정도를 연령별로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다. 본 설문지 문항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신체부위 각 14개 부위에 대한 인지도 14문항, 남성복 관능적 디자인의 10점에 대한 인지도 10문항, 여성복 관능적 디자인의 12점에 대한 인지도 12문항, 관능적 색상 10개에 대한 인지도 10문항과 본 연구자가 조사해 보고자한 디자인표현방법인 노출, 비침, 밀착에 대한 인지도 3문항, 인구통계학적 변인 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빈도수가 아주 낮게 나타나는 항목은 본 설문문항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자극물 선정은 본 조사의 설문문항으로 채택된 아이템별 관능적 디자인 남성복 10점과 여성복 12점을 2000~2004년 컬렉션지에 나타난 작품 중에서 의류학 전공자 5명이 선별하였다. 이러한 각 문항의 인지도를 점수화 하기위해 전혀섹시하지않다(1점)-섹시하지않다(2점)-보통이다(3점)-섹시하다(4점)-매우섹시하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관능적 디자인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20대에서 30대 사이와 보수적 성향이 다소 있을 거라 생각되는 40대에서 50대 사이의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303(53.3%)명으로 남성 265(46.7%)명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40대, 30대, 50대의 순으로 빈도수가 나타났다. 조사기간은 2004년 5월 14일부터 2004년 6월 13일까지 총 600부를 배부하고 582부를 회수하여 그 중에서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연구대상에서 벗어나는 16부를 제외한 568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 10.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 관능적 디자인, 관능적 디자인 표현방법, 관능적 색상의 연령대별 인지도의 차이를 검증하기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 후 사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한 결과를 연령대별로 분류하여 t-test를 통해 분석하였고,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와 관능적 디자인간의 상관성은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Ⅳ. 연구결과 및 분석

### 1.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와 관능적 디자인에 대한 인지도의 연령별 비교

연령대별 인지도의 차이를 검증하기위해 f-test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20대와 30대가 동일집단군에 속하고, 40대와 50대가 동일집단군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젊은 층에 속하는 20·30대와 중·장년층에 속하는 40·50대의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연령대별 인지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1)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에 대한 인지도

남성 신체 14개 부위에 대한 인지도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20·30대의 경우 신체부위 중 가슴(3.66)을 가장 높게 인지하였고, 어깨선(3.43)>팔(3.37)>등(3.32)>엉덩이 튀어나온 정도(3.17)>허리선(3.08)>배부위(3.03) 순으로 높게 인지하였다. 보통보다 약간 낮게 인지한 부위는 쇄골(2.94)>엉덩이 옆선(2.90)>다리(2.89)>골반(2.81)>앞목선(2.79)>뒷목선(2.69) 순이며, 발목(2.50)을 가장 낮게 인지하였다. 40·50대의 경우도 가슴(3.64)을 가장 섹시하게 인지하였고, 어깨선(3.22)>팔(3.07)>허리선(3.00)순으로 높게 인지하였다. 그리고 등(2.99)>엉덩이 튀어나온 정도(2.91)>다리(2.89)>쇄골(2.78)>엉덩이옆선(2.77)>골반(2.76)>앞목선(2.75)>배부위(2.73)>뒷목선(2.62)은 보통보다 약간 낮게 인지하였다. '섹시하지 않다'에 가깝게 인지한 부위는 발목(2.46)으로 나타났다. 20·30대와 40·50대 모두 남성 신체부위에 대해 대부분 보통으로 인지하였고, 신체부위 중 가슴을 가장 섹시하게 인지하였다.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남성 신체부위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20·30대가 40·50대보다 쇄골, 어깨선, 등, 팔, 배부위, 엉덩이 튀어나온 정도를 더 섹시하다고 인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제외한 8개 부위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40·50대는 20·30대보다 남성 신체부위 중에서 더 섹시하게 인지하는 부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여성 신체 14개 부위에 대한 인지도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20·30대의 경우 신체부위 중 가슴(4.22)을 가장 섹시하게 인지하였고, 허리선(3.98)>다리(3.70)>골반(3.57)>어깨선(3.55)·엉덩이 옆선(3.55)>쇄골(3.52) 순으로 섹시하다에 가깝게 인지하였다. 그리고 보통보다 높게 인지한 부위는 엉덩이 튀어나온

〈표 1〉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남성 신체부위에 대한 연령별의 차이 비교

| 신체부위 | 20·30대 (n=341) | | 40·50대 (n=227) | | t-value |
|---|---|---|---|---|---|
| | Mean | S.D | Mean | S.D | |
| 앞목선 | 2.79 | .85 | 2.75 | .86 | .55 |
| 뒷목선 | 2.69 | .81 | 2.62 | .82 | .97 |
| 쇄골 | 2.94 | .92 | 2.78 | .85 | 2.12* |
| 어깨선 | 3.43 | .97 | 3.22 | .96 | 2.55** |
| 등 | 3.32 | .99 | 2.99 | .94 | 3.96*** |
| 팔 | 3.37 | .97 | 3.07 | .95 | 3.56*** |
| 가슴 | 3.66 | .90 | 3.64 | .87 | .22 |
| 허리선 | 3.08 | .85 | 3.00 | .93 | 1.09 |
| 배부위 | 3.03 | .99 | 2.73 | .98 | 3.57*** |
| 골반 | 2.81 | .90 | 2.76 | .93 | .66 |
| 엉덩이 옆선 | 2.90 | .91 | 2.77 | .93 | 1.68 |
| 엉덩이 튀어나온 정도 | 3.17 | 1.07 | 2.91 | 1.02 | 2.87*** |
| 다리 | 2.89 | .91 | 2.89 | .95 | -0.04 |
| 발목 | 2.50 | .83 | 2.46 | .86 | .58 |

*p≤.05, **p≤.01, ***p≤.001

〈표 2〉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여성 신체부위에 대한 연령별의 차이 비교

| 신체부위 | 20·30대 (n=341) | | 40·50대 (n=227) | | t-value |
|---|---|---|---|---|---|
| | Mean | S.D | Mean | S.D | |
| 앞목선 | 3.25 | .77 | 3.33 | .90 | -1.15 |
| 뒷목선 | 3.39 | .93 | 3.28 | .93 | 1.37 |
| 쇄골 | 3.52 | .93 | 3.18 | .95 | 4.21*** |
| 어깨선 | 3.55 | .82 | 3.31 | .85 | 3.40*** |
| 등 | 3.10 | .89 | 3.05 | .87 | .66 |
| 팔 | 2.74 | .82 | 2.70 | .84 | .44 |
| 가슴 | 4.22 | .80 | 4.15 | .80 | .92 |
| 허리선 | 3.98 | .78 | 3.86 | .87 | 1.61 |
| 배부위 | 3.28 | 1.01 | 3.09 | 1.06 | 2.14* |
| 골반 | 3.57 | .92 | 3.34 | .98 | 2.86*** |
| 엉덩이 옆선 | 3.55 | .93 | 3.50 | .88 | .69 |
| 엉덩이 튀어나온 정도 | 3.49 | 1.02 | 3.37 | .94 | 1.33 |
| 다리 | 3.70 | .83 | 3.60 | .90 | 1.33 |
| 발목 | 3.25 | .95 | 2.90 | .97 | 4.27*** |

*p≤.05, ***p≤.001

정도(3.49)>뒷목선(3.39)>배부위(3.28)>앞목선(3.25)·발목(3.25)>등(3.10) 순으로 나타났고, 팔(2.74)은 보통보다 낮게 인지하였다. 40·50대의 경우도 가슴(4.15)을 가장 섹시하다고 인지하였고, 허리선(3.86)>다리(3.60)>엉덩이 옆선(3.50)>엉덩이 튀어나온정도(3.37)>골반(3.34)>앞목선(3.33)>어깨선(3.31)>뒷목선(3.28)>쇄골(3.18)>배부위(3.09)>등(3.05) 순으로 보통보다 높게 인지하였다. 그리고 보통보다 낮게 인지한 부위는 발목(2.90)>팔(2.70)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남성 신체부위와 여성 신체부위에 대해 20·30대와 40·50대 모두 가슴을 가장 섹시하게 인지하였고, 여성의 팔 부위 가장 낮게 인지하였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 여성의 팔 부위는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위로서, 신체를 완전히 노출하지 않거나 비침, 밀착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다른 부위보다 덜 섹시하게 여겨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여성 신체부위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신체부위 중 20·30대는 40·50대보다 쇄골, 어깨선, 배부위, 골반, 발목을 더 섹시하게 인지하였고, 이것을 제외한 9개 부위에 대해 연령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신체부위에 대해 대부분 20·30대가 40·50대보다 더 섹시하게 인지하여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젊은층의 20·30대에 비해 중·장년층의 40·50대의 경우에는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또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 관능적 디자인에 대한 인지도

남성복 관능적 디자인 10점에 대한 인지도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20·30대의 경우 단추오픈셔츠(3.27)를 가장 섹시하게 인지하였고, 니트(3.29)>민소매(3.22)>타이트한 상의(3.09)·찢어진청바지(3.09) 순으로 보통보다 높게 인지하였다. 그리고 트레이닝복(2.89)>가죽바지(2.85)>정장(2.81)>망사 또는 비침(2.78)>골반바지(2.73) 순으로 보통보다 낮게 인지하였다. 40·50대의 경우 니트(3.36)를 가장 섹시하게 인지하였고, 단추오픈셔츠(3.33)>민소매(3.23)>타이트한 상의(3.09)>가죽바지(3.03) 순으로 보통보다 높게 인지하였다. 그리고 보통보다 낮게 인지한 디자인은 찢어진 청바지(2.98)>망사 또는 비침(2.97)>골반바지(2.80)>트레이닝복(2.76)>정장(2.59)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복 관능적 디자인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20·30대는 40·50대보다 정장을 더 섹시하다고 인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은

〈표 3〉 남성복 관능적 디자인에 대한 연령별의 차이 비교

| 섹시 디자인 | 20·30대 (n=341) | | 40·50대 (n=227) | | t-value |
|---|---|---|---|---|---|
| | Mean | S.D | Mean | S.D | |
| 단추오픈셔츠 | 3.35 | .87 | 3.33 | .83 | .27 |
| 민소매 | 3.22 | .85 | 3.23 | .83 | -0.13 |
| 정장 | 2.81 | .91 | 2.59 | .90 | 2.93*** |
| 니트 | 3.29 | .98 | 3.36 | .90 | -0.91 |
| 타이트한 상의 | 3.09 | .89 | 3.09 | .82 | .08 |
| 가죽바지 | 2.85 | 1.03 | 3.03 | .95 | -2.09* |
| 골반바지 | 2.73 | 1.06 | 2.80 | 1.05 | -0.79 |
| 트레이닝복 | 2.89 | .91 | 2.76 | .86 | 1.62 |
| 망사 또는 비침 | 2.78 | 1.15 | 2.97 | 1.05 | -1.98* |
| 찢어진 청바지 | 3.09 | .90 | 2.98 | .90 | 1.38 |

*p≤.05, ***p≤.001

40·50대의 연령층에서 정장은 품위와 중후함을 나타내는 의복류이므로 섹시함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으나, 최근 20·30대의 남성정장 디자인 중 바지통이 좁고 허리선이 약간 들어간 타이트한 실루엣의 섹시한 남성정장이 등장하면서 20·30대는 정장에서 품위와 중후함 외에 섹시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0·50대는 20·30대보다 소재가 섹시하게 느껴지는 가죽바지, 망사 또는 비침을 더 섹시하게 인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의 연령층은 젊은층보다 가죽바지와 망사 또는 비침을 실제로 착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 평상시에도 착용가능성이 높은 젊은층보다는 좀 더 섹시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성복 관능적 디자인 12점에 대한 인지도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20·30대의 경우 옆트임 스커트(3.94)를 가장 섹시하게 인지하였고, 미니스커트 또는 핫팬츠(3.83)>등노출(3.78)>가슴파임(3.76)>끈원피스(3.70)>타이트 스커트(3.68)>배노출(3.57) 순으로 '섹시하다'에 가깝게 인지하였다. 그리고 보통보다 약간 높게 인지한 디자인은 비치는 상의(3.44)>타이트한 정장(3.43)>타이트 청바지(3.22) 순으로 나타났다. 40·50대의 경우도 옆트임 스커트(3.83)를 가장 섹시하게 인지하였고, 가슴파임(3.80)>미니스커트 또는 핫팬츠(3.72)·끈원피스(3.72)>등노출(3.71)>비치는 상의(3.61)>배노출(3.60)>타이트 스커트(3.55) 순으로 '섹시하다'에 가깝게 인지하였다. 그리고 보통보다 약간 높게 인지한 디자인은 타이트한 정장(3.32)>가죽재킷(3.18)>찢어진 청바지(3.02)> 타이트 청바지(3.01)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복 관능적 디자인에 비해 여성복 관능적 디자인을 20·30대와 40·50대 모두 섹시함을 높

〈표 4〉 여성복 관능적 디자인에 대한 연령별의 차이 비교

| 섹시 디자인 | 20·30대 (n=341) | | 40·50대 (n=227) | | t-value |
|---|---|---|---|---|---|
| | Mean | S.D | Mean | S.D | |
| 가슴 파임 | 3.76 | .75 | 3.80 | .79 | -0.58 |
| 등노출 | 3.78 | .79 | 3.71 | .87 | .90 |
| 가죽 재킷 | 3.10 | .89 | 3.18 | .92 | -0.95 |
| 옆트임 스커트 | 3.94 | .84 | 3.83 | .87 | 1.58 |
| 비치는 상의 | 3.44 | .92 | 3.61 | .93 | -2.17* |
| 미니스커트 또는 핫팬츠 | 3.83 | .99 | 3.72 | 1.01 | 1.31 |
| 배노출 | 3.57 | .88 | 3.60 | .96 | -0.35 |
| 타이트 청바지 | 3.22 | .89 | 3.01 | .80 | 2.79** |
| 타이트 스커트 | 3.68 | .77 | 3.55 | .79 | 1.99* |
| 찢어진 청바지 | 3.07 | .94 | 3.02 | 1.10 | .61 |
| 타이트한 정장 | 3.43 | .83 | 3.32 | .80 | 1.61 |
| 끈원피스 | 3.70 | .83 | 3.72 | .82 | -0.35 |

*p≤.05, **p≤.01

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복 관능적 디자인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20·30대는 40·50대보다 다리와 엉덩이 부위가 드러나는 타이트 청바지와 타이트스커트를 더 섹시하게 인지하였고, 40·50대는 상반신이 비치는 상의를 더 섹시하다고 인지하여 연령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는 앞의 남성복디자인에서와 같이 비치는 소재의 디자인을 다른 항목보다 더 섹시하게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0·50대가 노출이나 밀착보다는 비치는 소재에 의해 보일 듯 말듯 한 간접적인 섹시표현에서 더욱 선정적 이미지를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관능적 디자인 표현방법 및 색상의 인지도에 대한 연령별 비교

### 1) 관능적 디자인 표현방법에 대한 인지도

관능적 디자인 표현방법인 노출·비침·밀착에 대한 인지도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20·30대는 노출(3.94)을 가장 섹시하게 인지하였고, 다음 순으로 밀착(3.77)>비침(3.64)을 섹시하게 인지하였다. 40·50대의 경우도 노출(3.90)을 가장 섹시하게 인지하였고, 다음 순으로 비침(3.81)>밀착(3.67) 순으로 인지하였다. 20·30대와 40·50대 모두 노출이 가장 섹시함을 표현하는 디자인방법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관능적 디자인 표현방법에 대한 연령별의 차이 비교

| 섹시 디자인 표현방법 | 20·30대 (n=341) | | 40·50대 (n=227) | | t-value |
|---|---|---|---|---|---|
| | Mean | S.D | Mean | S.D | |
| 노출 | 3.94 | .75 | 3.90 | .86 | .67 |
| 비침 | 3.64 | .90 | 3.81 | .93 | -2.30* |
| 밀착 | 3.77 | .75 | 3.67 | .77 | 1.41 |

*p≤.05

관능적 디자인 표현방법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비침을 40·50대가 20·30대보다 더 섹시하다고 인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노출과 밀착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연령별 남성복·여성복 관능적 디자인 인지도 결과에서 40·50대가 비치는 소재의 디자인을 다른 디자인보다 좀 더 섹시하게 인지한 것과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2) 관능적 색상에 대한 인지도

관능적 색상 12개에 대한 인지도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20·30대의 경우 검정색(3.84)을 가장 섹시하게 인지하였고, 빨강색(3.72)>와인색(3.57)>흰색(3.45)>메탈릭 컬러(3.39)>보라색(3.11)>자주색(3.02) 순으로 보통보다 높게 인지하였다. 그리고 보통보다 낮게 인지한 색상은 분홍색(2.85)>베이지색(2.73)>파랑색(2.60)>회색(2.58)>갈색(2.55) 순으로 나타났다. 40·50대의 경우

〈표 6〉 관능적 색상에 대한 연령별의 차이 비교

| 색상 | 20·30대 (n=341) | | 40·50대 (n=227) | | t-value |
|---|---|---|---|---|---|
| | Mean | S.D | Mean | S.D | |
| 검정색 | 3.84 | .89 | 3.65 | .92 | 2.49** |
| 빨강색 | 3.72 | .83 | 3.58 | .91 | 1.91 |
| 흰색 | 3.45 | .91 | 3.31 | .84 | 1.93 |
| 보라색 | 3.11 | .84 | 3.14 | .87 | -0.43 |
| 분홍색 | 2.85 | .95 | 3.00 | .93 | -1.94* |
| 와인색 | 3.57 | .84 | 3.49 | .89 | 1.09 |
| 자주색 | 3.02 | .81 | 3.06 | .94 | -0.60 |
| 파랑색 | 2.60 | .86 | 2.57 | .83 | .41 |
| 갈색 | 2.55 | .88 | 2.64 | .94 | -1.09 |
| 베이지색 | 2.73 | .97 | 2.70 | .95 | .45 |
| 회색 | 2.58 | .87 | 2.48 | .89 | 1.31 |
| 메탈릭컬러 | 3.39 | .94 | 3.37 | .92 | .31 |

*p≤.05, **p≤.01

도 검정색(3.65)을 가장 섹시하게 인지하였고, 빨강색(3.58)>와인색(3.49)>메탈릭 컬러(3.37)>흰색(3.31)>보라색(3.14)>자주색(3.06)>분홍색(3.00) 순으로 보통보다 높게 인지하였다. 그리고 보통보다 낮게 인지한 색상은 베이지색(2.70)>갈색(2.64)>파랑색(2.57)>회색(2.48) 순으로 나타났다.

관능적 색상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20·30대는 40·50대보다 검정색을 더 섹시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0·50대는 분홍색을 더 섹시하다고 인지하여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색은 여러 가지 상징을 지니는 색으로 나이가 든 연령층에서는 점잖은 색, 무난한 색, 예의나 격식을 갖출 때 입는 색(예복, 문상(問喪)복)으로 생각되는 반면, 젊은 층에서는 밀착이나 비침 등의 디자인 요소와 결합하여 세련된 색 또는 관능적인 색으로 인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분홍색의 경우 과거에 여성으로서의 성적매력을 잘 나타내는 색상이므로 40·50대에서는 섹시한 정도를 좀 더 높게 인지할 수 있으나, 세기말을 거치면서 무채색이나 중성색 등의 차분한 색이 세련되고 섹시한 유행색으로 정착해 무채색이나 중성색이 섹시한 색으로 익숙해져 있는 젊은 층에서는 세기초에 로맨틱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의 분홍색 의복을 많이 접하다 보니 40·50대보다는 섹시한 정도를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3.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와 관능적 디자인간의 상관성에 대한 연령별 비교

#### 1) 남성 신체부위와 관능적 디자인간의 상관성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남성 신체부위와 관능적 디자인에 대한 상관성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20·30대의 경우 보통의 남성복보다는 섹시한 자극물로 인해 관능적 디자인의 상의, 하의와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가 대부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사 또는 비치는 의상은 앞목선, 가슴, 허리선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추오픈셔츠, 민소매, 니트, 타이트한 상의는 상반신과 모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가죽바지와 골반바지는 다리와 엉덩이 튀어나온 정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장과 트레이닝복은 엉덩이 부위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을 제외한 모든 신체부위와 그 부위를 강조한 디자인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의 경우 남성복 관능적 디자인의 상의 중 단추오픈셔츠는 셔츠의 단추가 풀어졌을 때 드러나는 부위인 쇄골과 가슴에서 상관이 나타났고, 상반신의 노출이 많은 민소매의 경우 앞목선, 쇄골, 어깨선, 등, 팔, 가슴이 상관이 나타났다. 타이트한 상의는 등, 팔, 가슴, 허리선이 상관이 있었으며, 가장 남성적인 의상인 정장은 어깨선, 등, 팔과 상관이 나타났다. 망사 또는 비치는 상의에서는

〈표 7〉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남성 신체부위와 관능적 디자인간의 상관성(20·30대) n=341

| 디자인 / 신체부위 | 단추오픈 셔츠 | 민소매 | 니트 | 타이트한 상의 | 가죽 바지 | 골반 바지 | 트레이닝 복 | 망사 또는 비침 | 찢어진 청바지 | 정장 |
|---|---|---|---|---|---|---|---|---|---|---|
| 앞목선 | .30** | .24** | .25** | .18** | | | | .13* | | .21** |
| 뒷목선 | .20** | .17** | .21** | .16** | | | | | | .21** |
| 쇄골 | .16** | .21** | .29** | .24** | | | | | | .18** |
| 어깨선 | .25** | .21** | .25** | .20** | | | | | | .26** |
| 등 | .19** | .21** | .29** | .25** | | | | | | .27** |
| 팔 | .33** | .35** | .15** | .11* | | | | | | .31** |
| 가슴 | .41** | .31** | .24** | .18** | | | | .21** | | .17** |
| 허리선 | .26** | .18** | .25** | .14** | .27** | .17** | .16** | .17** | .18** | .11* |
| 배부위 | .12* | .14** | .33** | .22** | .22** | .30** | .24** | | .30** | .20** |
| 골반 | | | | | .21** | .32** | .27** | | .27** | .14** |
| 엉덩이 옆선 | | | | | .25** | .12* | .15** | | .21** | |
| 엉덩이 튀어나온 정도 | | | | | .26** | | | | .15** | .22** |
| 다리 | | | | | .18** | | .17** | | .19** | .30** |
| 발목 | | | | | .21** | .14* | .23** | | .17** | .16** |

*p≤.05, **p≤.01

〈표 8〉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남성 신체부위와 관능적 디자인간의 상관성(40 · 50대) n=227

| 디자인 / 신체부위 | 단추오픈 셔츠 | 민소매 | 니트 | 타이트한 상의 | 가죽 바지 | 골반 바지 | 트레이닝 복 | 망사 또는 비침 | 찢어진 청바지 | 정장 |
|---|---|---|---|---|---|---|---|---|---|---|
| 앞목선 | | .19** | | | | | | | | |
| 뒷목선 | | | | | | | | | | .15* |
| 쇄골 | .20** | .18** | | | | | | .17** | | |
| 어깨선 | | .14* | | | | | | | | .16* |
| 등 | | .20** | | .13* | | | | | | .15* |
| 팔 | .15* | .27** | | .23** | | | | | | .20** |
| 가슴 | .21** | .19** | | .23** | | | | .23** | | |
| 허리선 | | | | .15* | | .19** | .19** | .16** | .21** | |
| 배부위 | | .19** | | .14* | | .21** | | | .15* | |
| 골반 | | | | | | .19** | .13* | | .25** | |
| 엉덩이 옆선 | | | | | | .17** | | | .25** | |
| 엉덩이 튀어나온 정도 | | | | | | | | | .34** | |
| 다리 | | | | | | | | | .19** | .14* |
| 발목 | | | | | | | .15* | | .19** | .19** |

*p≤.05, **p≤.01

상반신에서 비쳐 보일 수 있는 쇄골, 가슴, 허리선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하의의 경우 골반바지는 허리선, 배부위, 골반, 엉덩이 옆선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고, 트레이닝복은 허리선, 골반, 발목과 상관이 나타났으며 정장은 다리와 발목이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찢어진 청바지는 신체의 모든 부위와 상관이 나타났으나, 니트와 가죽바지는 모든 신체부위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 신체부위와 관능적 디자인에 대한 상관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표 7>과 <표 8>의 상관성이 나타난 항목들 중에서 연령대에 따라 상관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항목을 표시하였다. 40 · 50대의 망사 또는 비침과 쇄골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20 · 30대의 경우와 모두 일치하므로, 남성 신체부위와 디자인의 상관성에 대한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여성 신체부위와 관능적 디자인간의 상관성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여성의 신체부위와 여성복 관능적 디자인에 대한 상관성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9>, <표 10>과 같다. 20 · 30대의 경우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여성의 신체부위 중 가슴이 표현되는 가슴파임, 비치는 상의, 끈 원피스 디자인이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고, 등 노출 의상의 경우 등, 뒷목선, 어깨선이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신체선이 드러나는 의상인 끈 원피스, 미니스커트 또는 핫팬츠, 배노출, 옆트임 스커트, 타이트 스커트, 타이트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는 엉덩이 부위와 상관이 나타났고, 다리는 의상으로 인해 엿보기가 가능한 부위로서 살짝 덮인 긴 스커트의 슬릿 사이로 보여 질 수 있는 옆트임 스커트와 미니스커트 또는 핫팬츠, 타이트 청바지는 다리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찢어진 청바지와 배노출 의상은 배 부위와 골반이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가죽재킷과 타이트한 정장은 어떤 신체부위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40 · 50대의 경우 여성복 관능적 디자인 중 가슴파임과 비치는 상의는 가슴이 부분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의상으로서 가슴부위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등 노출 의상의 경우 등과 뒷목선이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고 타이트스커트는 허리선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죽재킷에서는 팔과 쇄골이 상관이 나타났으나, 쇄골은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끈 원피스는 쇄골과 엉덩이 튀어나온 정도, 다리, 발목과 상관이 나타났고, 미니스커트 또는 핫팬츠는 골반과 다리가 상관이 나타났다. 타이트 청바지는 골반과 엉덩이 부위가 상관이 나타났고, 찢어진 청바지는 엉덩이 튀어나온 정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이트한 정장은 발목이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노출 의상과 옆트임 스커트는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위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40 · 50대는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디자인과는 대부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능적 디자인에 대해 무감각 · 무관심하거나 또는 노출에 대해 보수적 경향

〈표 9〉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여성 신체부위와 관능적 디자인간의 상관성(20 · 30대) n=341

| 디자인 / 신체부위 | 가슴 파임 | 등노출 | 비치는 상의 | 가죽 재킷 | 끈 원피스 | 배노출 | 미니스커트 또는 핫팬츠 | 옆트임 스커트 | 타이트 청바지 | 타이트 스커트 | 찢어진 청바지 | 타이트 정장 |
|---|---|---|---|---|---|---|---|---|---|---|---|---|
| 앞목선 | .13* | | | | | | | | | | | |
| 뒷목선 | | .27** | | | | | | | | | | |
| 쇄골 | .14* | | | | | | | | | | | |
| 어깨선 | | .12* | | | | | | | | | | |
| 등 | | .27** | | | | | | | | | | |
| 팔 | | | .11* | | | | | | | | | |
| 가슴 | .14** | | .28** | | .16** | | | | | | | |
| 허리선 | .14** | | | | .12* | .16** | .17** | .15** | | .12* | | |
| 배부위 | | | .11* | | | .26** | | | | | .13* | |
| 골반 | | | | | | .21** | .11* | | .21** | | .12* | |
| 엉덩이옆선 | | | | | .16** | | .16** | | .15** | | | |
| 엉덩이 튀어나온 정도 | | | | | | | .18** | .15** | .26** | .18** | .13* | |
| 다리 | | | | | | | .16** | .15** | .19** | | | |
| 발목 | | | | | | | | .11* | .15** | | | |

*p≤.05, **p≤.01

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 신체부위와 관능적 디자인에 대한 상관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표 9>과 <표 10>의 상관성이 나타난 항목들 중에서 연령대에 따라 상관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항목을 표시하였다. 연령별로 여성 신체부위가 디자인으로 잘 표현되는 항목에만 상관이 나타났으나, 상관성의 분포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20 · 30대의 경우 주로 노출되거나 밀착되는 디자인과 신체부위와의 상관이 40 · 50대보다 많이 나타났고, 40 · 50대의 경우 가죽재킷, 끈원피스, 타이트한 정장과 신체부위와의 상관성을 제외

〈표 10〉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여성 신체부위와 관능적 디자인간의 상관성(40 · 50대) n=227

| 디자인 / 신체부위 | 가슴 파임 | 등노출 | 비치는 상의 | 가죽 재킷 | 끈 원피스 | 배노출 | 미니스커트 또는 핫팬츠 | 옆트임 스커트 | 타이트 청바지 | 타이트 스커트 | 찢어진 청바지 | 타이트 정장 |
|---|---|---|---|---|---|---|---|---|---|---|---|---|
| 앞목선 | .17** | | | | | | | | | | | |
| 뒷목선 | | .27** | | | | | | | | | | |
| 쇄골 | | | | -.17** | .16* | | | | | | | |
| 어깨선 | | .13* | | | | | | | | | | |
| 등 | | .17** | | | | | | | | | | |
| 팔 | | | | .15* | | | | | | | | |
| 가슴 | .20** | | .17** | | | | | | | | | |
| 허리선 | | | | | | | | | | .14* | | |
| 배부위 | | | | | | | | | | | | |
| 골반 | | | | | | | .13* | | .16* | | | |
| 엉덩이옆선 | | | | | | | | | .14* | | | |
| 엉덩이 튀어나온 정도 | | | | | .13* | | | | .14* | | .18** | |
| 다리 | | | | | .19** | | .14* | | | | | |
| 발목 | | | | | .14* | | | | | | | .17** |

*p≤.05, **p≤.01

한 나머지는 20·30대와 대부분 일치하였다. 남성 신체부위에 비해 여성신체부위에서 더 많은 차이가 나타난 것은 성적매력의 주체인 여성신체가 대부분 보통정도로 인지된 남성 신체보다 각 신체부위별로 섹시함이 더욱 잘 인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론 및 제언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와 관능적 디자인에 관한 인지도의 차이와 상관성을 연령별로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남성 신체부위에 대해 연령대 모두 가슴을 가장 섹시하게 인지하였다. 특히 20·30대는 40·50대보다 쇄골, 어깨선, 등, 팔, 배부위, 엉덩이 튀어나온 정도가 더 섹시하다고 인지하였고, 40·50대는 20·30대보다 더 섹시하게 인지하는 신체부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신체부위에 대해서도 연령대 모두가 가슴을 가장 섹시하게 인지하였다. 20·30대는 40·50대보다 쇄골, 어깨선, 배부위, 골반, 발목을 더 섹시하다고 인지하였고, 40·50대는 20·30대보다 더 섹시하게 인지하는 신체부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신체부위에서 20·30대가 40·50대보다 더 섹시하게 인지한 것은, 젊은층의 20·30대에 비해 중·장년층의 40·50대는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남성복 관능적 디자인에 대해 20·30대는 단추오픈셔츠, 40·50대는 니트를 가장 섹시하게 인지하였다. 특히 타이트한 실루엣의 정장 디자인이 많은 20·30대가 40·50대보다 정장을 더 섹시하게 인지하였고, 40·50대는 20·30대보다 소재가 섹시하게 느껴지는 가죽바지와 망사 또는 비침을 더 섹시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복 관능적 디자인에 대해 20·30대와 40·50대 모두 옆트임 스커트를 가장 섹시하게 인지하였다. 20·30대는 40·50대보다 타이트청바지, 타이트스커트를 더 섹시하게 인지하였고, 40·50대는 20·30대보다 비치는 상의를 더 섹시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30대는 주로 노출과 밀착되는 디자인을 섹시하게 인지하였고 40·50대는 소재나 비침에 의한 디자인을 더 섹시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관능적 디자인의 표현방법에 대해 연령대 모두 노출을 섹시하게 인지하여 가장 관능적인 디자인 표현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가 20·30대보다 비침을 더 섹시하다고 인지하였고, 20·30대는 40·50대보다 더 섹시하게 인지하는 디자인 표현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능적 색상에 대해 연령대 모두 검정색을 가장 섹시하게 인지하였다. 특히 20·30대는 40·50대보다 검정색을 더 섹시하게 인지하였고, 40·50대는 20·30대보다 분홍색을 더 섹시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남성신체부위와 남성복 관능적 디자인에 관한 상관성을 연령별로 비교해 본 결과, 20·30대는 대부분의 디자인과 신체부위와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0·50대는 니트와 가죽바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남성의 신체부위가 관능적 디자인으로 잘 표현되는 항목에만 상관이 나타났다.

5.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여성신체부위와 여성복 관능적 디자인에 관한 상관성을 연령별로 비교해 본 결과, 연령대 모두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가 디자인으로 잘 표현되는 항목에만 상관이 나타났으나, 20·30대는 가죽재킷과 타이트한 정장, 40·50대는 배노출과 옆트임스커트가 신체부위와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연령별로 본 관점에 따라 상관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연령대에 따라 섹시함을 인지하는 정도와 차이점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는 관능적 디자인을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상의 관능적 디자인에 활용된 노출, 밀착, 비치는 신체부분이 활용되는 신체부위에 섹시함과의 연관성이 있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금까지의 관능적 디자인 상품개발에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부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에 따라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부위가 그 시대 유행상품의 관능적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연령별에 따른 결과, 타깃 소비자의 연령대에 적합한 관능적 디자인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된다면, 앞으로의 관능적 디자인 상품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 섹시, 에로티시즘, 비침, 밀착

## 참 고 문 헌

관능적 (2005, 1. 10)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자료검색일 2005, 9. 7, 자료출처 http://www.encyber.com

김덕자 (1993). 광고와 에로티시즘. 서울: 미진사.

김희정 (2001). 서양 여성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에 관

한 연구: 19세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데즈먼드, 모리스 (1985). 바디워칭. 이규범 옮김 (1994). 서울: 범양사.

박관우 (1999). 획일화된 섹시함은 싫다. 여성과 사회. 10, 126-129.

변소영 (1999). 에로티시즘을 반영한 의상 디자인 연구: 속옷의 겉옷화 현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섹시 (2005, 1. 10).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자료검색일 2005, 9. 7, 자료출처 http://www.encyber.com

섹시 (2000, 1. 1).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03, 5. 16,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송희정 (1999). 패션의 에로티시즘: 바디 컨셔스, 시 스루 스타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아름다운 임신...날 좀 봐 주세요 (2004, 8. 2).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04, 9. 10, 자료출처 http;//www.donga.com

엘리자베스, 루즈 (1989). 코르셋에서 펑크까지. 이재한 옮김 (2003). 서울: 시지락.

열린 가슴 클리비지룩...자신감+섹시미 과시 (2003, 5. 7) 스포츠투데이. 자료검색일 2004, 9. 16, 자료출처 http://www.stoo.com

윤가현 (1993). 성 심리학. 성원사.

이민선 (2001).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Ⅰ): 남성 패션에 표현된 에로티시즘을 중심으로. 복식, 51(1), 163-174.

이수인 (2004). 에로티시즘의 인지차원과 의복의 구성적인 특징 : Versace 의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9/10), 1329-1340.

임정순 (1999). 블랙의상의 에로티시즘 표현에 관한 연구: 20세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전용훈 (1999). 나는 섹시한 여자가 좋다. 여성과 사회. 10, 130-134.

조영란 (2004). 의상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속옷의 겉옷화 현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채석옥 (1999). 에로티시즘 표현 양식을 응용한 속옷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한명숙 (1999). 현대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1), 128-140.

홍순미 (2000). 현대 여성복 패션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표현: 199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Coward, R (1984). *Female Desire*. Paladin.

sexual (2005, 1. 10).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자료검색일 2005, 9. 7, 자료출처 http://www.encyber.com

sexy (2005, 1. 10).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자료검색일 2005, 9. 7, 자료출처 http://www.encyber.com

Wildman, RW, Wildman, RW, Brown, A, & Trice, C (1976). Note on Males' and Females' Preferences for Opposite Sex Body Part, Bust Sizes and Bust Revealing Clothing. *Psychological Reports, 38*(2). pp. 485-486.

(2005. 08. 01 접수; 2005. 10. 15 채택)